



단기 모멘텀 크지 않지만 하방리스크는 제한적

은행 Weekly | 2026.10.12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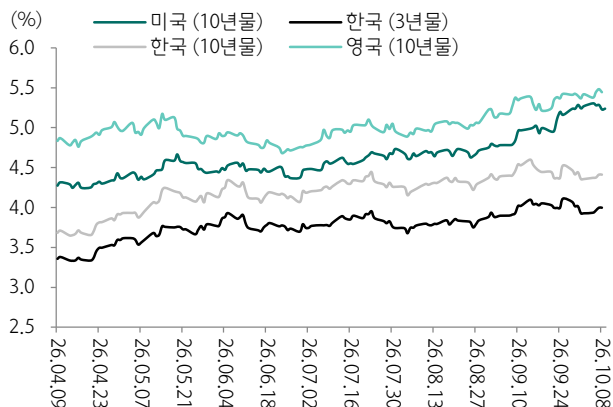
- 이달초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사태가 발생한 이후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이 3영업일만에 16조원 가까이 급감. 다만 월초에는 급여·법인자금 등의 이동으로 요구불예금 변동성이 큰데다 주식·부동산이나 고금리 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이동 경향이 큼
- 은행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흐름.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 로펌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 1인당 청구액은 10~30만원 수준 예상
- 올해 4분기 금리 변동을 앞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분기보다 21조원 늘어난 규모로 코로나당시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한 차주들의 금리 재산정 시기와 금리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우려
-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하반기 금융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2금융권에 집중됐던 부실 부담이 시중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연착륙과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자본 여력이 있는 대형은행의 역할을 강조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10월 8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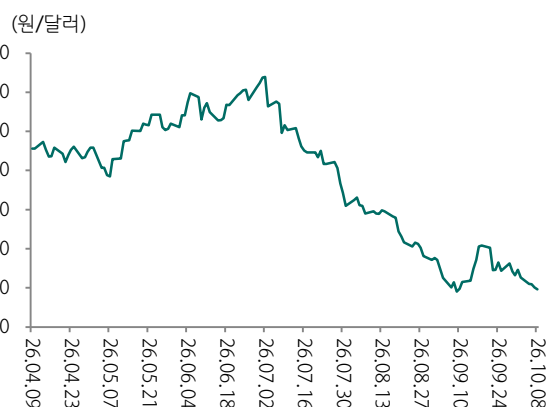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2	6.5	23.3		5,467,252.0	-5.4	-5.3	-9.1	57.2	-3,474.1	-407.0	-7,478.8	8,531.8
은행	0.67	7.6	9.1	0.65	199,683.6	-3.6	-8.9	-2.1	22.7	8.1	-36.4	-47.0	56.7
KB 금융	0.89	8.5	10.6	0.81	57,743.2	-2.7	-7.4	-5.0	30.6	6.2	-16.2	-12.1	5.6
신한지주	0.75	8.8	9.7	0.69	46,710.3	-5.1	-12.6	-5.2	29.4	21.4	-9.7	-15.1	14.0
우리금융	0.58	7.3	8.3	0.52	23,835.1	-3.4	-5.4	7.7	15.5	11.0	-1.9	-25.0	13.3
하나금융	0.68	7.7	9.3	0.64	33,681.6	-3.7	-10.5	1.4	32.1	-24.8	-6.1	18.9	5.8
기업은행	0.42	5.7	7.5	0.54	15,749.2	-2.2	-5.5	-3.7	-5.7	-6.5	-1.8	-11.8	18.1
BNK 금융	0.42	5.8	7.4	0.50	4,697.7	-4.0	-3.1	-11.1	-3.5	-3.0	-1.3	4.2	-2.2
이M 금융	0.42	5.7	7.5	0.47	2,782.5	-5.7	-5.8	1.5	13.0	1.2	-0.3	-3.3	2.0
JB 금융	0.79	6.9	12.1	1.00	5,194.6	-4.0	-11.3	11.8	8.6	2.6	0.8	-2.6	0.1
카카오뱅크	1.30	16.1	8.3	0.73	9,289.5	-1.2	-11.7	-9.9	-9.9	-6.2	-4.1	3.6	2.7
삼성카드	0.52	7.6	7.0	1.90	4,773.4	-1.8	-11.7	-20.3	-26.3	-1.0	-0.2	-0.7	1.6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3.6% 하락해 KOSPI 하락률 5.4%에 비해서는 초과상승. 이는 1) 일부 반도체소부장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이닉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 폭이 커졌기 때문. 2) 다만 은행주도 금융권 해킹사태의 여파가 지속되었고, 3) 9월 월중 NIM이 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심리 위축 현상이 이어졌으며, 4) 미국 국채금리 고공행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defensive 주식으로서의 매력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음.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전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7일 장중에는 5.36%를 상회하는 등 금리 공포감이 확대. 핼코 CIO는 헤지펀드들의 손절매로 10년물 국채금리가 6%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 다만 10년물 국채 입찰 흥행으로 인해 금리 상승세는 진정되었고, 10월 미국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약 82% 수준임. 결국 지난주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79%로 한주간 3bp 하락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5.24%로 한주간 2bp 하락. 반면 국내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음. 3년물 국채금리는 3.99%로 한주간 4bp 상승했고, 10년물은 4.40%로 3bp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외환시장에 계속 유입되면서 소폭 하락. 1,342.0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2.2원 추가 하락. 외국인도 지난주에도 KOSPI를 약 7.5조원 대량 순매도했고 은행주도 470억원 가량 순매도. 국내 기관 역시 지난주 KOSPI를 약 3.5조원 순매도했고, 은행주는 80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이 중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분 900억원을 제외시 실질적으로는 순매도. 한편 하나금융은 9월말경 2,500억원의 자사주 매입이 종료
- 전주 특징주는 신한지주. 한주간 주가가 5.1% 하락해 대형은행지주사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는데 금융권 해킹사건의 정보유출규모가 2.6만건으로 은행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심리가 더 위축되었고, 일회성 부동산 매각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타행대비 상대적으로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 중소형은행 중에서는 iM금융의 주가가 5.7% 하락해 가장 컸음. 이는 특별한 이슈보다는 전전주 초과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추정됨
- 우리 필드테스트에 따르면 은행 9월 월중 마진이 8월 월중 NIM 대비 평균 약 2~3bp 이상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보통 분기말월에는 연체 회수 등의 계절성 효과 등으로 인해 월중 NIM이 상당폭 오르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금년에는 6월에 이어 9월에도 분기말월 월중 NIM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조달 관련 부담이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는 듯. 따라서 3분기 은행 평균 NIM 하락 폭은 QoQ -4bp 정도로 더 확대되고, 우리금융과 JB금융 등은 하락 폭이 -7bp까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반면 기업은행은 3분기에도 NIM이 QoQ +2bp 상승해 은행 중 유일하게 NIM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출 측면보다는 조달 측면에서의 우호적인 영향으로 추정. 특수은행으로서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타행들과 달리 요구불예금 감소 등을 고금리 특판 정기예금(예수금)으로 대체할 유인이 적기 때문. 조달 경쟁에서 다소 빗겨나 있는 점이 3분기에 NIM이 선방하는 주요 배경으로 판단
- 금융권 AI 해킹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 금감원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2025년 정보보호 집행액은 은행당 약 300~500억원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향후 유사한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IT 투자 확대가 확대될 여지 있지만 자산화 이후 감가상각비 반영 등을 감안시 당장의 손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과징금 부과 가능성 이슈는 외부에서의 AI agent를 활용한 금융권 전체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통신사 관리 부실과 관련된 해킹과는 상황이 또 다르며, 고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지만 인당 예상 청구 금액을 감안했을 때 전체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평판 리스크는 별개로 치더라도 관련 이슈가 은행 재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은행 3분기 실적이 우려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소 일회성 요인들에 기인한 바가 크고, 현 여건상 과거와는 달리 실제 손익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3분기 NIM도 예상보다 하락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모멘텀은 크지 않은 상황. 10월말경 발표될 홍콩 ELS 과징금 추가 경감 여부와 공정위의 국고채 PD 담합 의혹 과징금 여부 등이 단기 이벤트로 작용할 공산이 큼. 다만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어쨌든 defensive 주식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될 여지와 다시 평균 PBR이 0.7배를 하회해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은 하방리스크를 제한하는 요인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235,000원), BNK금융(매수/TP 24,500원)

- KB금융의 3분기 실적은 타행들과는 달리 부동산매각익과 외화환산익 등의 대규모 비경상 이익 발생 요인 없이도 양호할 것이라는 점에서 펀더멘털 측면의 강점 부각 예상. 금리 모멘텀 발생시 업종내 리딩뱅크로서의 입지 또한 강화될 여지 높음
- BNK금융은 계속된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해 연초 대비 상승률은 -3.5%. 현 PBR은 0.42배. 10/26 3분기 실적발표일에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발표가 예상되는데 지난 5월에도 한달만에 모두 매수했다는 점에서 10월말부터 수급 여건 개선 전망

Global Peer Table

(2026년 10월 8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52	6.5	23.3		5,467,252.0	-5.4	-5.3	-9.1	57.2
은행	0.67	7.6	9.1	0.65	199,683.6	-3.6	-8.9	-2.1	22.7
KB금융	0.89	8.5	10.6	0.81	57,743.2	-2.7	-7.4	-5.0	30.6
신한지주	0.75	8.8	9.7	0.69	46,710.3	-5.1	-12.6	-5.2	29.4
우리금융	0.58	7.3	8.3	0.52	23,835.1	-3.4	-5.4	7.7	15.5
하나금융	0.68	7.7	9.3	0.64	33,681.6	-3.7	-10.5	1.4	32.1
기업은행	0.42	5.7	7.5	0.54	15,749.2	-2.2	-5.5	-3.7	-5.7
BNK금융	0.42	5.8	7.4	0.50	4,697.7	-4.0	-3.1	-11.1	-3.5
IM금융	0.42	5.7	7.5	0.47	2,782.5	-5.7	-5.8	1.5	13.0
JB금융	0.79	6.9	12.1	1.00	5,194.6	-4.0	-11.3	11.8	8.6
카카오뱅크	1.30	16.1	8.3	0.73	9,289.5	-1.2	-11.7	-9.9	-9.9
삼성카드	0.52	7.6	7.0	1.90	4,773.4	-1.8	-11.7	-20.3	-26.3

미국

S&P 500	5.22	21.6	22.9	6.08	69,809.0	1.2	2.4	3.8	14.1
은행	1.60	12.0	13.3	1.15	2,147.2	0.9	-7.6	-4.5	1.2
Wells Fargo	1.49	12.0	13.4	1.03	252.7	3.9	-6.8	-3.3	-10.4
JPM	2.42	13.5	19.0	1.39	885.1	0.7	-5.7	-0.2	3.3
CITI	1.10	11.6	10.0	0.71	217.5	0.9	-5.9	-6.6	11.1
BOA	1.35	11.9	12.0	0.97	379.8	1.1	-13.3	-7.9	-1.2
US Bancorp	1.42	10.9	13.3	1.20	88.9	-0.7	-7.2	-6.9	7.0
PNC	1.47	11.4	13.2	1.27	87.5	-0.8	-8.9	-11.9	5.0
BB&T	0.94	9.9	9.7	1.08	56.3	-0.7	-8.1	-9.4	-6.3

중국

상해A주지수	1.34	13.6	10.1	1.42	61,366.3	-0.7	-3.3	-4.8	-3.9
은행	0.73	7.9	9.4	0.70	13,109.9	-0.1	2.7	14.7	-0.5
공상은행	0.71	7.9	9.1	0.68	2,771.4	-0.7	2.8	13.1	3.7
건설은행	0.77	8.3	9.6	0.75	2,228.6	-0.7	1.5	13.2	18.3
농업은행	0.83	8.5	10.0	0.63	2,398.3	0.1	2.5	14.2	-9.1
중국은행	0.77	9.0	8.6	0.66	2,052.1	0.6	5.3	18.5	18.2
교통은행	0.57	7.3	7.9	0.62	665.6	0.4	6.7	19.4	7.3
초상은행	0.88	7.0	12.9	1.13	1,058.8	0.4	1.0	13.3	-1.6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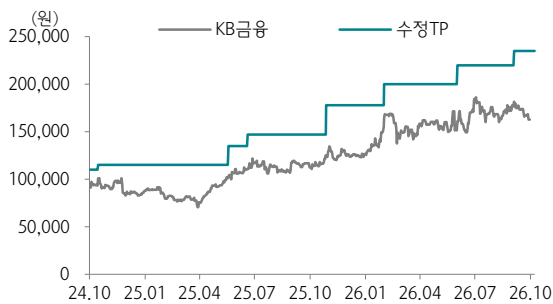
NIKKEI	2.93	22.3	12.7	4.58	1,057,075.4	1.1	6.5	2.5	37.1
은행	1.50	14.7	10.1	0.51	142,484.3	-3.0	-1.5	1.9	41.2
Mitsubishi UHF	1.84	17.5	10.8	0.61	41,086.0	-2.3	-2.6	2.8	38.9
Sumitomo Mitsui Financial	1.59	15.7	10.8	0.61	24,752.9	-2.0	-3.0	-3.2	29.2
Mizuho	1.82	16.9	11.4	0.43	20,065.4	-2.7	-2.2	0.9	44.1
Sumitomo Mitsui Trust	1.41	15.6	9.3	0.37	4,717.0	-3.2	-1.1	4.0	41.3

유럽

MSCI Europe	2.31	15.0	14.7	1.80	15,053.6	0.1	-1.1	-1.1	7.0
은행	1.46	10.6	13.9	0.75	2,060.2	-2.3	-7.4	-1.9	12.5
HSBC	1.71	11.0	15.5	0.86	239.2	-3.2	-9.9	-3.7	18.9
Santander	1.60	11.5	13.8	0.78	175.0	1.8	-5.3	-0.2	19.4
BNP Paribas	0.80	7.6	10.9	0.44	99.1	-2.3	-9.6	-6.9	11.3
Credit Agricole	0.66	7.1	9.7	0.29	49.9	-3.3	-11.7	-6.3	-7.0
Deutsche	0.85	9.1	9.6	0.43	57.4	-3.0	-14.0	-2.9	-9.2
Unicredit	1.63	10.3	16.8	1.24	114.8	-3.4	-9.6	-7.1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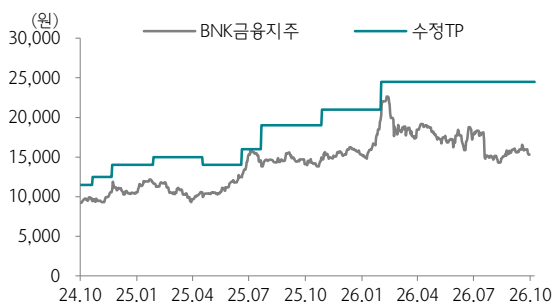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9.13	BUY	235,000		
26.6.12	BUY	220,000	-23.34%	-15.36%
26.2.11	BUY	200,000	-22.36%	-14.20%
25.11.7	BUY	178,000	-27.10%	-12.64%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BNK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24,500		
25.11.7	BUY	21,000	-24.78%	-6.19%
25.8.1	BUY	19,000	-23.37%	-17.89%
25.6.30	BUY	16,000	-7.88%	-0.31%
25.4.28	BUY	14,000	-20.70%	-9.21%
25.2.7	BUY	15,000	-28.96%	-21.27%
24.12.2	BUY	14,000	-20.72%	-13.14%
24.10.31	BUY	12,500	-22.39%	-15.52%
24.5.2	BUY	11,500	-21.47%	-10.52%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10월 1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10월 1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8%	1.82%	0.00%	100%

* 기준일: 2026년 10월 8일